

한국 통번역학 관련 학술지의 논문 심사과정에 관한 소고*

신 혜 정
(조선대)

1. 머리말

학회의 핵심 역할은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을 통해 관련 분야 지식을 생산·공유·확산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지식과 연구결과는 물론 선행 연구 내용까지 담고 있는 논문이 해당 학문공동체 안팎으로 공유 및 확산되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학회에 속한 회원과 임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하면, 심사위원들은 이를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심사-편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관장한다.

학회 회원들이 곧 논문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며, 이번 호(號) 심사위

* 본 논문의 초고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자료요청에 협조해주신 학회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

1) 각 학회(연구소)의 학회지 및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원이 다음 호의 저자가 되고 이번 호 저자가 다음 호에서는 심사위원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학술지 발간 과정에 관여되는 회원 간 신뢰가 중요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저자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자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고 성의 있게 논문을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심사위원은 저자가 과학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논문으로 제출했다고 전제하고 평가한다.

학술지가 투고 논문이 전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문장의 역할(gatekeeping role)을 한다는 베이어, 체노브, 폭스(Beyer, Chanove, & Fox)를 인용한 손태원(1999: 168에서 재인용)은 심사과정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는 편집위원(장)과 심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손태원은 이들의 “권한행사”가 연구자들과 그들의 연구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였다(1999: 168-169).

대부분의 학회는 익명심사(blind review)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사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심사위원의 직책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학회지 투고 논문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invalid) 논문을 걸러냄으로써 학회지의 수준을 높게 유지(Elsevier 2014a)하는 역할을 한다.²⁾ 또한, 단순한 게재 여부 판정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심사를 해야 한다(이학준 2013; 하병학 2014: 321; Taylor & Francis 2014).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준은 곧 회원 저자들의 논문 및 이들을 뒷받침하는 제도(institutions)의 수준(Elsevier 2014b)이라 할 정도로, 논문 저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고 이들의 능력과 판단이 학회의 수준을 좌우한다. 이처럼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각각 학회지 발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투고-심사-편집 과정에서 각자에 요구되는 역할 및 심사과정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관광학(차석빈 2008a, 2008b, 2011), 수사학(하병학 2014), 건축학(이희봉 2008), 전자공학(변증남 1981), 의학(김광민 2010a, 2010b), 간호학(조경숙 현명선 조동숙 2006)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문 심사 기준과 질

2) 최광목 정선민 남명진(2006)도 학술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데 전문심사자(peer reviewer)의 능력과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차를 다른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통번역학계에서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다.

본 논문은 학회의 수준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척도가 되는 논문 심사과정에 초점을 맞춰, 통번역학을 비롯한 어문학 학회의 심사 절차와 관습을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를 받은 경험과 심사자로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과정과 관련하여 생각해볼만한 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한다.³⁾ 통번역학을 비롯한 국내외 어문학 학회지의 논문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대한 소개는 이제 갖 연구를 시작하여 논문 투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직 게재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이 참고할만한 지침이 되고, 심사 경험이 없거나 앞으로 계속 심사를 맡게 될 심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논문 투고·심사 절차 및 관련 규정

2.1 논문 형식 심사

대부분의 학회는 학회지나 학회 웹사이트에 논문 투고 규정, 심사기준, 심사절차, 집필양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국내외 통번역학 학회지들은 공통적으로 학회지의 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각 학회지 규정 중 논문 형식과 관련한 부분이다.

제 3장 심사규정
제13조(접수)

- 3) 상기한 선행연구 중에는 저자 자신이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논문화하거나 기고문 형식으로 쓴 경우가 있었다. 필자가 편집위원으로서 편집과정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없고, 현재 각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속해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알기에 위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편집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나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4: 478)

제4장 심사기준

제 5 조 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장 심사절차

제 1 조 접수: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한국통역번역학회 2014a: 264)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5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게재 형식의 적합성

(한국번역학회 2014a: 398;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4: 262)

※ 내용에 관계없이 형식이 맞지 않으면 원고가 반환됩니다.

(한국번역학회 2014b: 407)

제2장 투고 규정

제5조 (내용) 『동화와번역』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투고하는 논문은 오탈자가 없는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

제4장 심사 규정

제12조 (심사 절차)

① 해당 권호의 논문 접수를 마감한 후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투고한 논문이 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투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형식 심사를 한다.

② 형식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위촉하여 내용 심사를 의뢰한다.

③ 형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투고자에게 바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투고 조건을 갖추어 다시 투고할 경우 내용 심사를 의뢰한다.

[...]

제14조 (심사 방법)

- ①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형식 심사’와 심사위원의 ‘내용 심사’로 구분한다.
- ② 형식 심사는 ‘가부 심사’로 『동화와번역』의 투고 자격, 논문 투고 마감일 준수 여부, 원고 분량의 적절성, 논문 체재의 준수 여부, 초록 수록 여부, 주제어 수록 여부, 각주 달기 방식, 참고 문헌 수록 방식의 적합함 등 8가지 항목을 판정한다.
- ③ 형식 심사에서 4항목 이상 ‘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 심사에 붙이지 않는다. 4항목 미만으로 ‘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이를 바로 알리고,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도록 한다.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350-358)

위에 인용한 5개 학회지 중 4개는 논문 형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5개 학회지 모두 논문 심사기준 또는 심사표(심사서)에서 논문 형식 적합성 등의 항목을 두어 형식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⁴⁾ 그만큼 학회 규정 및 논문 형식 준수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서, 심사의 1차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 학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을 반송하는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식의 준수 여부를 따져 논문을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형식 심사와 내용 심사를 분리 시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 심사과정 분석을 위해 조사한 국내외 통번역학 관련 학회지들의 정보와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번역학연구』의 경우 규정에 명시된 심사기준에는 ‘학회지 게재 형식의 적합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논문 심사서에는 직접적으로 형식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2009년에는 있었으나 현재 심사서에는 없음 - 필자 보유자료). 10개의 평가 항목 중 ‘참고 문헌 제시의 적절성’과 ‘논문의 완성도’와 같은 항목에서 내용과 함께 형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따로 지침이 없는 한, 이들을 내용 심사 항목으로만 여기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내용에 관계없이 형식이 맞지 않으면 원고가 반환됩니다”라는 학회의 규정을 두고 편집진이 1차적으로 형식에 어긋나는 논문을 걸러내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실제 해당 학회지의 심사 결과, 학회지 게재 형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이 심사자에게 전달된 경우가 있었다.

〈표 1〉 분석 대상 통번역학 관련 학회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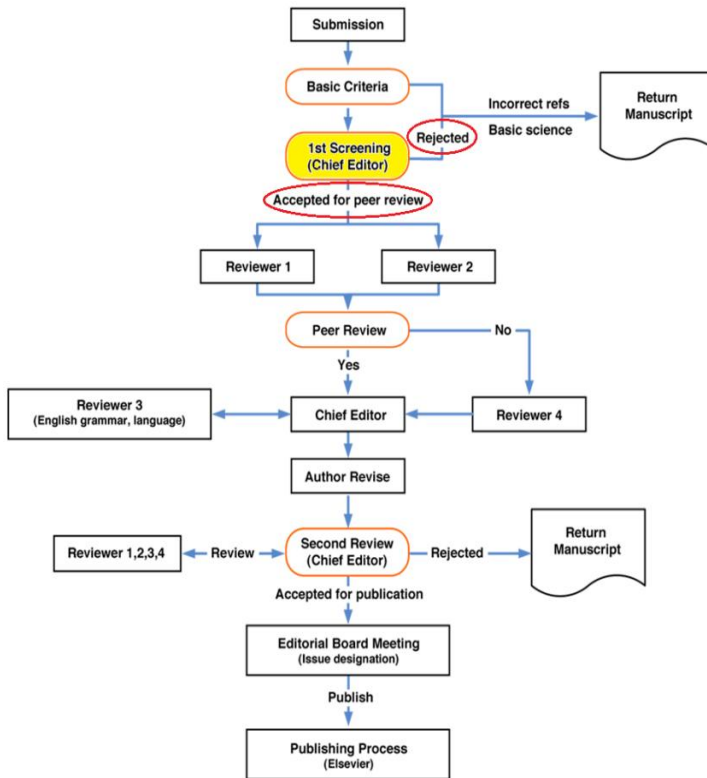
지널명	발행기관(발행국)	등재정보	심사서 양식 공개 여부	특징
『동화와번역』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대한민국)	한국학술 지인용색 인(KCI) 등재	공개 (학회지에 게재)	-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심사(1차) 후 심사위원이 내용 심사(2차)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대한민국)	KCI등재	비공개 ⁵⁾	- 심사서에 형식 평가 항목 없음 - 심사 관련 질문 및 제안 수렴 (논문심사 지침서에 안내)
<i>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i>				- ‘Presentation’ 항목에서 형식, 언어, 논문 구성 평가
『통번역교육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대한민국)	KCI등재	공개 (학회지에 게재)	- ‘학회지 게재 형식 적합성’, ‘영문 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항목에서 형식 평가
『통번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대한민국)	KCI등재	비공개	- 내용평가와 형식평가 구분 ⁶⁾ - 평가 항목을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
『통역과 번역』	한국통역번역학회 (대한민국)	KCI등재	비공개	- ‘형식의 적절성’ 항목에서 투고 요령 준수 여부(영문초록, 인용방법, 참고문헌 등) 평가
<i>FORUM</i>	한국통역번역학회 (대한민국) Les Presses de la Sorbonne Noubvelle (프랑스)	-		- ‘Format’ 항목에서 형식(style sheet) 준수 여부 평가
<i>Meta</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캐나다)	A&HCI 등재	공개 (웹사이트 에 게재)	- 내용 형식 상 기준 미충족 시 반려(reject) ⁷⁾

5) 비공개 자료들은 해당 학회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논문 심사서와 학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6) 심사표는 내용평가와 형식평가로 나누어져 있지만, 심사위원이 내용과 형식을 모두

<그림 1>은 학술 출판사 Elsevier의 논문 심사과정 순서도이다. Elsevier는 2,200여 종의 저널과 25,000종 이상의 단행본을 출판하는 세계 최대 출판사이다. <그림 1>을 보면 편집위원장(Chief Editor)이 1차적으로 논문의 적격 여부를 심사(screening)하여 형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논문은 반려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만 전문가 심사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다(필자 강조).

<그림 1> Elsevier 출판사 논문 심사과정 순서도(Elsevier 2014c)



평가하는 방식이다.

7) 논문작성예시(stylesheet)에도 “본 지침을 준수한 논문들만 심사한다”(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2014a)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1차 심사 과정은 <표 1>의 *Meta*와 『동화와번역』과도 유사하다.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동화와번역』의 특징은 형식과 내용을 따로 심사한다는 점이다. 『동화와번역』의 논문 심사는 논문 형식 심사(가부 심사)와 논문 내용 심사(등급 심사)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편집위원회의 형식 심사를 거친 후, 통과된 논문만 심사위원회에 보내져 내용 심사를 받는다. <그림 2>는 『동화와번역』 논문 심사서(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368)의 일부이다.

<그림 2> 『동화와번역』 논문 심사서(부분)

■ 1단계 : 논문 형식 심사(가부 심사)

1) 투고 자격 여부	가 / 부	5) 초록 수록 여부(한·영)	가 / 부
2) 논문 투고일 준수	가 / 부	6) 주제어 수록(한·영)	가 / 부
3) 원고 분량의 적절함	가 / 부	7) 각주 달기 방식	가 / 부
4) 기본 체제 준수 여부	가 / 부	8) 참고 문헌 수록 방식	가 / 부
< 형식 심사 결과 >		1) 내용 심사 불가 2) 수정 후 내용 심사	

※ 형식 심사는 ‘편집 위원회’에서 합니다.

■ 2단계 : 논문 내용 심사(등급 심사)

다음 각 항목에 심사 의견을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A	B	C	D
1)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창의성				
2)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4) 논문의 체계성과 서술의 논리성				
5) 앞선 연구의 적절한 비판과 인용				
6)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기여도				
7) 연구윤리 준수 여부				
<종합 평가>				

심사 위원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그림 2>처럼 1단계 형식 심사를 편집위원회가 맡아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전체적인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소

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개정 내용까지 포함하여) 학회지 형식과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편집위원회가 형식 요건을 평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심사위원들에게 바로 심사를 의뢰할 경우 위원 3인 모두가 형식의 부적절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심사위원들이 형식에 대한 지적을 할 것 이란 생각에 의도치 않게 형식 심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 3인의 결과가 모두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투고자 정보를 알고 있는 편집위원회가 가/부를 신속하게 판단한 뒤, 투고자로 하여금 투고규정과 원고 작성 요령에 맞게 수정, 투고하도록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형식을 잘 지켜 투고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내용) 심사를 받게 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 편집위원회가 일관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평가에 정확을 기할 수 있고, 놓치고 넘어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투고하는 학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회지마다 조금씩 다른 논문 형식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심사 논문과 함께 투고 규정이 전달되어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놓칠 수 있는 형식상의 오류를 편집위원회가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논문의 형식 점검이 이루어지면 게재 논문들의 형식이 통일되어 학회지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

셋째, 전문 심사위원들이 형식보다 내용 심사에 더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논문의 전문성 제고를 꾀할 수 있다. 특히 『동화와번역』은 2단계 내용 심사에서 연구윤리 준수 여부까지 평가해야하므로 편집위원회가 형식 심사를 맡아 심사위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그림 2>의 2단계 7번 항목 참조). 이렇게 게재 논문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학회지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이유로 형식 심사(1단계)와 내용 심사(2단계)로 나눠 편집위원회의 형식 심사를 거친 후 심사위원이 내용 심사를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2 연구윤리 규정

통번역학 학회지들은 연구윤리 규정을 두어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명시하고 있다.⁸⁾ 여기서는 각 학회지의 저자 윤리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1) 표절 금지
 - 출처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
- 2) 명목상 저자 불인정
 -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저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 3)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 이미 출판된 연구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금지 (건국대학교 동화외번역연구소 2014: 362-364; 한국번역학회 2014c: 408-409; 한국통역번역학회 2014b: 298-299)

한국통역번역학회(2014b: 298-299)는 중복 게재(이중 게재)와 달리, 허용되는 이차 출판(이차 게재) 방식을 안내하여 중복 게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조(중복 게재) [...]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나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출판하기 원하는 저자는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앞으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중복 게재 여부를 확인한 후 양측의 동의를 구해 이차 출판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연구윤리 규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연구자가 무지(無知)로 인해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를 범하게 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⁹⁾

학회가 연구윤리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면, 편집

-
- 8)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의 구분 없이 모든 연구자에 해당하는 연구윤리로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용어를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 9) 중복 게재 판정 기준, 이차 출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연구재단 웹진(2010) 연구윤리 지침 해설과 Elsevier(2014d) 참조

위원회는 저자(투고자)에게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통해 저자 스스로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동화와번역』, 한국콘텐츠학회, 『번역학연구』 국제호(영문) 등에서 논문 투고자에게 이러한 목적의 양식¹⁰⁾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저널 *Meta*와 학술 출판사 Elsevier, John Benjamins 등을 살펴보았는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투고자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동화와번역』 제_호에 투고합니다.
2. 본인은 투고한 논문이 『동화와번역』에 수록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귀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367)

[...]

The paper has not been or will not be submitted to another journal or publication, in part or as a whole.

The paper is not, and will not be, under evaluation nor in process to be published elsewhere, in part or as a whole, until the evaluation process at Meta is finished and the result transmitted to the author.

The paper is not a translation from another paper published in any language, in part or as a whole. [...]

I have obtained permission to translate and publish from the editor of the original publication, and I have acknowledged the fact in the paper.

I have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s to reproduce material, including photographs, images, diagrams not owned by me, and I have acknowledged the source.

[...]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I understand

10) 각 양식의 명칭은 ‘『동화와번역』 논문 심사 신청서’, ‘(한국콘텐츠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Status Form’이다.

that failure to comply with Meta policy regarding the exclusivity of the submission will lead to automatic rejection of the paper.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2014b)

상기 예시에서 『동화와번역』과 *Meta*의 첫 번째 항목은 논문의 중복 게재 여부를 묻고 있다. *Meta*의 두 번째 항목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학회에 (동시) 이중 투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인이다. 세 번째 항목은 이전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연구인 경우에는 이전 출판본의 편집자에게 번역 및 출판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논문에도 이전 출판본의 번역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 항목은 자신의 것이 아닌 사진, 그림, 도표 등을 다시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광민(2010a: 501)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논문 내용이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 논문의 표, 그림 등을 중복 사용하는 것은 자기표절이나 이중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논문이 출판되면 저작권이 학술지 또는 출판사에 이양되므로 저자는 논문 본문과 사진, 표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데 연구자들이 이를 착각한다고 설명한다. 함창곡(2010: 4)은 학술지에 따라 투고규정에 편집인의 승인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재사용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경우, 상기 설명처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이전 출판본의 번역 출판 및 출판된 본인 논문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설명은 학회 규정이나 웹사이트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를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각 학문 분야 및 학술지마다 통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에 비해 A&HCI, SSCI급 저널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 윤리규정 보완과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심사자가 저자의 중복 게재, 자기 표절 여부를 잡아낼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저자가 이전에 유사

한 연구를 출판한 적이 있는지, 이미 출판된 논문의 데이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저자로 하여금 학회지의 연구윤리를 숙지하도록 하고, 중복 게재가 염려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국내 통번역학 학술지 모두 규정에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별도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받으면 저자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기할 수 있고, 심사 상의 어려움도 덜어져 결국에는 학회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¹¹⁾

3. 심사 관련 제안사항

3.1 편집위원회 결정 및 타 심사위원 판정 내용 고지

예전에 어떤 논문의 심사를 맡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 심사서를 보내고 나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판정은 어땠는지, 저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현재 저자 수정 후 재심을 받고 있는지 등 진행상황이 궁금했다. 이런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의 판정 결과나 편집위의 최종 게재 여부 결정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기다렸으나 따로 고지는 없었다. 추후 해당 논문이 투고됐던 학회지를 받아보니 논문이 실려있지 않아 다른 심사위원들의 판정도 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정 후 게재’ 판정이 가장 많으므로(최광목 정선민 남명진 2006: 76; 하병학 2014: 317) 대부분은 다른 심사위원들의 판정이나 편집위의 최종 결정을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030명의 심사자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1.2%)한 2006년 자료에 따르면 87%가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보길 원하며, 90%가 최종 결정을 알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Elsevier 2014e). 실제로 한 응답자는 “다른 심사자들과 의견이 일치하면 (심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의견이 다를 때는 나와 다르게 생각한 이유를 알 수

11)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화와번역』과 『번역학연구』 국제호는 규정에 규정 준수 서약을 명시하고, 별도로 서약서를 받는다.

있어서 심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Elsevier 2014e).

단순한 궁금증 해소 차원을 넘어 이처럼 심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완료 후 서로의 심사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보면서 자신은 성의 있게 심사했는지, 수정요구를 명료하게 전달했는지, 저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살펴며 더 좋은 심사를 하도록 고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변증남(1981: 8)은 심사가 끝나면 각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알리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심사서를 익명인 상태로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심사결과를 전달해야하는 편집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이고, 최종 심사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수정 후 재심사(재제출)’나 ‘게재 불가’ 판정일 때일 것이므로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하 판정을 내린 경우에만 심사 결과를 알리고 서로의 심사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2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

본 논문 1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심사위원의 능력은 학회지의 수준과 직결된다. 또한,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책임이 큰 자리이다. 심사자로 선정되는 것이 곧 동료들에게서 학자로 인정받는다는 명예(손태원 1999: 5)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회지가 익명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변증남(1981: 7)은 1년에 한 번씩 학회지에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의 명단을 게재하여 감사 표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출판사 Elsevier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Scopus, ScienceDirect 등 데이터베이스에 30일간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심사위원 인증서(certificcate)를 발급한다. 국내 학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이 학회지 서두에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는 글(한국정보과학회 1996)을 실거나, 1년 동안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의 명단을 실기도 한다(전력전자학회 2005: 7).

통번역학 학회들의 경우 연구자 층이 얇아 한 심사위원이 여러 학회지의

심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회지에 논문 투고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여러 학회지에서 심사 요청이 줄을 잇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각 학회지에서 심사위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 심사위원들은 학문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 권위 있는 저널일수록 해당 저널의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큰 명예가 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해마다 각종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회지와 함께 심사위원의 노고의 또 다른 수혜자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각주로 감사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무적인 학계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3.3 심사 지침 및 심사 안내

연구 경력이 짧은 연구자들이나 논문 심사를 처음 맡게 된 사람은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용 논문과 함께 받는 심사서(심사표) 양식과 학회지 투고규정 등이 참고가 된다. 필자가 한 언어학 관련 학회지의 심사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이전에 어느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서 샘플을 함께 보내주었다. 심사서 샘플은 해당 학회지의 목표, 주제 범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심사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심사 경험이 일천하거나 해당 학회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lsevier 등 학술 출판사나 외국 저널에서는 따로 웹사이트를 두어 심사위원을 위한 지침(Reviewers' Guidelines)을 제시하고 심사자, 편집자, 투고자 각각의 역할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사표에 심사기준과 심사항목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표의 심사항목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명료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논문의 전반적인 가치와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항목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한 학회지 중에는 심사 항목에 ‘학문적 기여도’ 또는 ‘학문 분야에 대한 공헌’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게재된 논문의 전

파와 활용을 위해서는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²⁾

4. 결론을 대신하여

논문 심사는 학회지 발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각종 학술지의 저자 또는 심사위원으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사의 공정성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익명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심사과정 자체가 배일에 싸인, 범접할 수 없는 주제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논문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눈에 띄는 반면, 통번역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번역학 학회지들의 논문 심사과정을 살펴보고, 그간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경험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의 효율화와 논문 수준 제고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해보았다. 국내 통번역학 학회지를 비롯하여 해외 우수 학회지 및 출판사의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국내 학회지들에 적용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통번역학 관련 학회들이 영문판을 발간하며 국제 저널로서 발돋움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A&HCI급 저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되도록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개인적으로는 본 연구를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심사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논문 저자와 심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좋은 심사자였는지 등을 되새겨보게 되었다. 부족한 식견에,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민감한’ 주제를 꺼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논문 심사, 연구윤리 등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보완이 필

12) 『통번역학연구』의 경우, 내용평가 4개 항목 중 1번과 2번은 ‘연구주제’에 관한 것이며, 3번(“연구방법론이 절차에 맞추어 제시/적용되었는가?”)과 4번 질문(“논증 혹은 검증을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은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분석 및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인용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등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항목을 수정, 보완하는 안을 제안한다.

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학술적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논문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등 다양한 입장의 시각과 피드백을 듣고 보다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다루지 못한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JAMS)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부록」, 『동화와번역』 27: 345-371.
- 김광민 (2010a) 「이중 게재와 이차 출판」, 『가정의학회지』 31(7): 501-502.
- _____ (2010b) 「심사 기준 및 심사 평가서」, 『가정의학회지』 31(9): 659-660.
- 변증남 (1981) 「학회지 논문심사 과정에 대한 제안」, 『전자공학회잡지』 8(1): 1-8.
- 손태원 (1999) 「『인사·조직연구』지의 논문게재 심사과정에 대한 소고」, 『인사·조직연구』 7(1): 167-197.
- 이학준 (2013) 「희망을 주는 심사, 절망을 주는 심사」,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24(2): 21-30.
- 이희봉 (2008) 「건축역사학회 논문심사의 내용과 제도에 관한 점검 -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건축역사연구』 17(1): 158-164.
- 전력전자학회 (2005) 「논문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 『전력전자학회지』 10(1): 7.
- 조경숙 현명선 조동숙 (2006)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심사결과 분석 - 2003년 투고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6(1): 197-205.
- 차석빈 (2008a) 「국내 관광학 관련 학회지 논문심사기준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 레저연구』 20(3): 341-357.
- _____ (2008b) 「관광 관련 학회지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관광학연구』 32(5): 425-435.

- _____ (2011) 「관광관련 학회지 심사위원들의 투고논문 심사기준 및 게재판정 방식 분석」, 『관광학연구』 35(1): 13-31.
- 최광묵 정선민 남명진 (2006) 「올바른 논문 심사에 관하여」, 『생명윤리』 7(2): 73-80.
- 하병학 (2014) 「인문학 논문 심사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 한국수사학회 논문 심사를 중심으로」, 『수사학』 20: 303-333.
- 한국번역학회 (2014a) 「한국번역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번역학연구』 15(3): 397-402.
- _____ (2014b) 「『번역학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번역학연구』 15(3): 403-407.
- _____ (2014c) 「한국번역학회 연구윤리규정」, 『번역학연구』 15(3): 408-411.
-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4) 「통번역연구소 규정」, 『통번역학연구』 18(3): 477-481.
- 한국정보과학회 (1996) 「논문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정보과학회지』 14(9): 권두언.
-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4)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통번역교육연구』 12(1): 261-264.
- 한국통역번역학회 (2014a) 「한국통역번역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통역과 번역』 16(2): 263-278.
- _____ (2014b)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통역과 번역』 16(2): 298-301.
- 함창곡 (2010) 「출판윤리」, 『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12): 3-9.

<인터넷 자료>

- 한국연구재단 웹진 (2010) 중복게재 : 연구윤리지침 해설서를 통한 이해.
Retrieved September 28, 2014, from
http://webzine.nrf.re.kr/nrf_1004/html/re4.html
- Elsevier (2014a) Why review? Retrieved September 25, 2014, from
<http://www.elsevier.com/reviewers/home#why-review>
- _____ (2014b) Publishing ethics. Retrieved September 25, 2014, from

<http://www.elsevier.com/about/publishing-guidelines/publishing-ethics>

_____ (2014c) Reviewer guidelines. Retrieved September 25, 2014, from <http://www.elsevier.com/reviewers/reviewer-guidelines>

_____ (2014d) Ethics. Publishing responsibilities of authors. Retrieved September 27, 2014, from <http://www.elsevier.com/journal-authors/ethics#writing-an-article>

_____ (2014e) Peer review. Feedback. Retrieved September 30, 2014, from <http://www.elsevier.com/editors/peer-review#supporting-reviewers>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2014a) Stylesheet. Retrieved September 27, 2014, from <http://meta.erudit.org/?lang=en>

_____ (2014b) Status form. Retrieved September 27, 2014, from <http://meta.erudit.org/?lang=en>

Taylor & Francis (2014) What is peer review? Retrieved September 26, 2014, from <http://journalauthors.tandf.co.uk/review/peer.asp>

[Abstract]

Thoughts on the Review Proces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s in Korea

Shin, Hyejung
(Chosun University)

One of the key functions of an academic society is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and three pillars of a journal publication process are authors, reviewers, and the editorial board. Authors submit their paper to a journal in the expectation of being accepted. Reviewers evaluate the paper and comment on things to improve on. The editorial board supports authors and reviewers and mediates between them. The three players depend on each other in the process; each ha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fulfill and the end product of their collabor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 quality of the journal.

Unlike other academic disciplines, there has been no formal discussion of the publication process, more specifically the review process, in the fie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o, this paper looks at the review proces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s in Korea and discusses what is expected of authors, reviewers, and the editorial board in each part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current review process.

▶ Key Words: ethics policy, evaluation guidelines and criteria, journal publication process, peer review,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신혜정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과

hjshin@chosun.ac.kr

관심분야: 번역학, 코퍼스언어학,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4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